

#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 전문 포함 요구

### 유성엽 교문위원장, “아래로부터의 민주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 민주화운동의 모태라 할 것”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평화당, 정읍·고창)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정부 발표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

주화운동, 6·10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 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발의 주체를 떠나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이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특히, 아래로부터의 민주혁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이번 개헌에 논의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모태라 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반드시 우리 근대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특별위원회와 청와대에 정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유 위원장은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를 받아들이고, 정부 여당의 의견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유성엽,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민주평화당이 21일 오전 9시, 제19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을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의결되면서 민주평화당은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에 돌입했다.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92조(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당규 제8호 제3조(설치), 제4조(구성)에 따라 내부 인사 5인과 외부 인사 4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우리 당에 쏟는 기대가 큰 만큼,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6.13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종합경기장 개발 등 8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경선에 나선 이현웅 예비후보(사진)가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흥륜경제·행정전문가를 내세우며 8대 공약 정책을 발표했다.

<본보 3월 21일자 3면>



8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전주종합경기장 획기적 개발, 복지구현, 전주만의 구도심, 입체형 도로교통체계 도입, 체육시설 건립, 농식품생명산업도시 조성, 전주·완주 광역도시 통합 등의 정책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경우 “그동안 공공 일자리에만 치중했다”면서 “민간기업을 유치해 일명 ‘스마트일자리’로 표현하며 4대 보증을 적용받는 상근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꽃밭정 4거리에서 백제대로까지 출근길 혼잡을 지적하며 입체형 ‘도로교통체계’ 도입을 거론하며 지하차도, 고가차도 7개소를 설치해 출근 지옥길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시의 재정자립도, 국가예산이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현시정의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삼머슴’을 자처, 전주시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청, 전주시청에서의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를 강조하며 경선에서 선택받을 것을 확신했다. /채규남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대화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준비위원 이상철(왼쪽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병규 통일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 “軍 춧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강제 수사해야”

### 군인권센터 “이철희 의원실 공개한 문건 2건에서 음모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져”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군(軍)이 춧불집회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2건에서 박근혜 퇴진 춧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문건은 군 내부의 박근혜 대통령직 부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 기각 시 병력 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등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가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문건이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면서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명백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다.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확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도 성명을 내고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구홍모 참모차장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

### 최영규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돼

최영규 의원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단채당 출마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에 최영규 의원(익산시), 부대표에 강성봉 의원(비례대표)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최 원내대표는 “비록 임기는 짧지만 도의회와 정당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을 위한 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 2016년 4.13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회에 입성 후 중앙당 부대변인, 원내 대변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성봉 부대표는 29살 청년 이장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시절 원주 용진 청년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국장과 대외협력국장, 조직국장, 중앙당 미세먼지 특위 부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 13년간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았다. /김진성 기자

### 강성봉 도의원, 공장 돌며 지역인재 채용 협조 요청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성봉(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이트 완주공장, 전주 KCC 공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월 전북도의회 비례대표를 승계 받은 강 의원은 더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도내 청년 실업률이 5.1%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재직했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여러 기업을 방문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직원 채용시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특히, 도의원이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한 강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장해 최근 현대자동차 산하 협력업체에 지역 청년들과 노인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하이트 완주공장(공장장 송병중)을 찾아 직원 채용시 50%까지는 지역인재들을 뽑아달라고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3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고 오랜 당직 생활을 하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다”면서 “도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전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것이 결국 전북의 인구 증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으로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